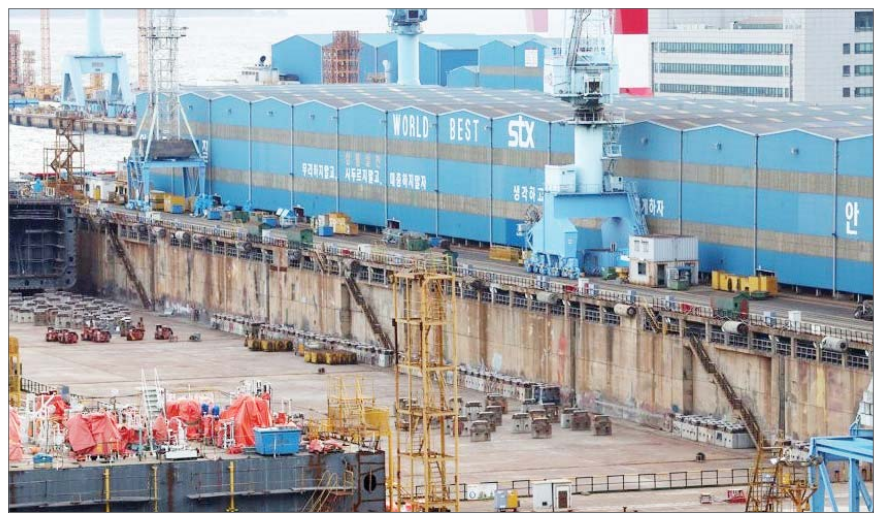
342만명이 논다… 실업·半실업 역대 최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比 16개월 연속 증가
순수 실업자 7개월째 100만명
"주력 산업 구조적 한계 봉착"


지난 4월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의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실업자이거나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는 이들이 1년 넘게 전년 동월 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수는 올해 7월 기준 342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2000명(5.9%) 많았다.

이들의 규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늘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자를,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취업자 중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의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업자 혹은 '반(半) 실업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신호로도 풀이된다.

사실상 실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보여주는 체감실업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높았다.

올해 7월 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1년 전보다 0.6%p 올랐다.

순수한 실업자 규모를 봐도 고용은 심각한 상황이다. 실업자는 올해 1~7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이는 외환위기 막바지였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이처럼 실업자나 실업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16개월째 증가한 것은 주력 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세업체의 채용까지 위축하는 등 고용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것. 특히, 제조업 등 좋은 일자리 감소는 실업자는 물론,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잠재 구직자' 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족할 만할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이 실업자나 잠재경제활동인구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실업자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전반적인 인구는 증가하는 데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다 일자리로 수용하지 못하는 영향도 있다"며 "일할 의욕이나 의사가 있는 이들이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실업자 혹은 잠재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곡물 ⬆, 유지류·유제품 ⬇ 지난달 세계식량가격 안정

농식품부

하락세서 올해 초 수준으로 유지

올해 5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7월 이후 올해 초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67.6p로 7월의 167.2p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9일 밝혔다.

곡물 가격은 상승,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했으며 육류 가격은 안정세였다.

품목별로는 곡물이 전월보다 4.0% 오른 168.4p를 기록했다.

EU와 러시아 지역의 작황 악화 우려에 따라 밀 가격이 올랐고, 옥수수는 밀 가격 상승의 여파가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육류는 전월과 비슷한 166.3p로 안정세를 보였다.

양고기는 꾸준한 수요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 감소로 3개월 연속 값이 올랐으며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요가 크게 늘어 비싸졌다.

소고기는 미국의 수출량이 늘어 가격 약세를 보였고 가금육은 수요 감소로 값이 내렸다.

유제품은 전월보다 1.5% 내린 196.2p로 집계됐다.

치즈 가격이 전월 하락세에서 소폭 반등했을 뿐 버터와 탈지분유, 전지분유 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유지류도 전월보다 2.6% 하락한 138.2p로 3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탕 역시 5.4% 하락한 157.3p를 기록해 최근 10년 새 가장 가격이 낮았다.

/세종=최신웅 기자

추석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산업부 오늘부터 2주간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을 대비해 전기와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 안전점검은 추석을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전통시장·백화점 등 유통시설,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총 5702개소의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추석 명절시 휴대용 가스렌지, 전열기기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요령, 안전수칙 등에 대해 대국민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9월 22일~26일) 기간 중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24시간 긴급 대응센터를 운영해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의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철거작업 시작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나흘째인 9일 오후 관계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리 피조사자, 진술서·확인서 열람

금감원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앞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식이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16개 서식을 신설하고, 6개 서식은 개정한다.

오는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를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해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서식을 마련했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한다.

감사인 미선임과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일정 재무기준 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지정대상이 된 회사의 경우 2개 사업연도를 지정한다.

조치사전통지서는 개정하고, 감리자료열람신청서는 신설했다.

조치 사전통지사항으로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을 추가해 충실화하고, 감리자료 열람이 허용된 데 따라 관련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다음달 10월 1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정책브리핑

노동부, 내일 SETEC서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

120여 기업 참가…2100명 채용 예정

고용노동부는 장년고용강조주간을 맞아 이달 11일 서울 SETEC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신중년들은 인생3모작 지원관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수석컨설턴트의 1:1 맞춤 컨설팅을 받고 창업, 귀농, 기술교육,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인생3모작 경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있다.

또한 금융 업종 및 자동차 산업 퇴직자를 비롯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의 성공적인 전직 지원을 위해 전직멘토관도 운영된다. 전직멘토관에서는 전직·재취업을 위한 멘토링에 더해 신중년의 전직·재취업 진로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헤어·메이크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건강관리 등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박람회에는 교보생명, NICE신용정보, 한솔 등 120여 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해 총 2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도 신중년의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 관련 정보 및 채용 기업별 모집 직종, 자격 요건, 근로조건 등 자세한 정보는 2018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 홈페이지(5060job.care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명절 앞두고 유통 단속 축산물이력제 점검 나서

정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된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